

野 “尹 거부권, 특검 필요성 키워… 대통령 부부 수사 대상”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또! 국민 무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강력히 규탄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6개 야당·시민사회 공동 회견… ‘채상병 특검’ 두번째 거부 비판 “김건희 여사, 임성근 구명 로비 창구 정황… 윤석열 특검 발의할 것”

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를 행사한 것을 두고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이 제 발 저리니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대통령 부부 방탄용 거부권 남발과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정재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통과된 특검법안에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며 총선 참패에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2016년 박근혜 정권

을 탄핵하자며 촛불을 들었던, 수백만 수천만 국민들이 외쳤던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핀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를 VIP에게 했다고 말한 녹취가 어제 언론 보도로 공개됐다”며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진실을 은폐하려 하지만 진실을 숨기면 숨길수록 독은 무너져 내리고 악취는 더 진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보수 전멸을 바라는 게 아니라면 이쯤에서 진실의 편에서 서서 그나마 남아 있는 보수진영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법 재의결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른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종호,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주가 조작범과 천공과 같은 사기꾼이 나라의 중대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다”며 “윤 대통령 내외는 하와이에 있을 게 아니라 당장 귀국해서 국민 앞에 자수하고 광명을 찾아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과 시민사회는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은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방해·수사외압의 몸통”이라며 “조국혁신당은 특검법 재의결이 실패할 경우 대통령 윤석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의 주요 창구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힘 “국회 청원尹 탄핵 사유 부적합”

추경호 원내대표 “법리 안맞아”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법리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로지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는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정쟁만을 위한 위법적 탄핵 청문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애초에 국민청원을 이유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청문회를 여는 것은 그 내용과 절차 모두 법리에 맞지 않다고 민주당 소속 정재태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의 위법성’ 설명자료를 별도로 배포하고 “탄핵소추 청원은 ‘기관으로서의 국회’ 또는 ‘정부 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청원이 아니므로 본회의의 부의 없이 종결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원에 나온 대통령 탄핵 5가지 사

유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거나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어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원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정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 자체가 위법한 절차이기 때문에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이 포함된 증인 39명에 대해서도 “출석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검박한다면 정정대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겠다”며 경고했다. /연합뉴스

민주 ‘검찰청 폐지’ 이달내 당론 발의

수사·기소권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공소청에 각각 부여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이달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발제에서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수처장은 3년 임기로 하고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꾸린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계나 수사

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안이다.

이성운 의원은 발제에서 공소청장을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용민·이건태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가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에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하고, 8개월이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지연 방지법’(형사소송법을 개정안)도 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재명 연임 도전… 민주 당대표 3파전

김두관·김지수 출마… 최고위원 후보 13명 14일 예비경선

더불어민주당의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출전자 명단’이 10일 완성됐다.

민주당은 지난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대표 선거에 총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입후보한 이들은 김두관 전 의원, 김지수 한남대미래경제포럼 대표, 이재명 전 대표(이상 가나나순다)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총 13명(원내 8명·원외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원내에서는 전현희, 한준

호, 강선우, 이성운, 김민석, 민형배, 김병주, 이언주 의원이 후보로 나섰다.

원외에서는 박완희 정주시의원, 최태호 안양시장, 정봉주 전 의원, 김지호 부대변인, 박진환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이 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예비경선을 거쳐 최고위원 후보 중 본선에 오를 8명을 가린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중앙위원급 50%·권리당원 50%의 투표를 반영한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서삼석 “연안 여객선 공영제 내년까지 실현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섬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통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권 출범 당시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연안 여객선 공영제를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148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164 대에 비해 16 대 감소한 것이다.

이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은 119 대로, 2021년 137 대에서 18 대가 감소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 보조 선박은 2대만 늘어났다. 여객선은 이처럼 감소하고 있지만, 이용객은 늘

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여객선 이용객은 1326만명으로 지난 2021년 1146 만명에 비해 16%가 증가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과 해수부 장관은 한 목소리로 20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여객

선이 미기항 하는 유인섬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실현 의지가 실종된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제 21대에 이어 제 22대 국회에서도 ‘해운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3 건의 법안을 제발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신청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등 차 지 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애니로마트등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